

1인 가구의 사회서비스 인지도와 수요 분석

이정화(인하대학교 일반대학원 소비자학전공 통합과정 수료)

이종희(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부교수)

사회·문화적인 환경 변화와 불안정한 국내외 경제 상황으로 인해 한국 사회의 가구 유형도 큰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가구유형별 구성비를 보면, 1인 가구는 2017년 28.5%에서 2020년 31.2%로 증가하면서, 부부와 자녀가구(31.4%→29.3%), 부부가구(15.8%→16.8%)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통계청, 2019~2022). 1인 가구 중 65세 이상 고령 가구주, 여성 가구주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1인 가구를 위한 다양한 사회복지 정책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더불어 COVID-19 확산 기간 동안 대면 접촉에 대한 불안이 증대되고, 예측 불가능한 신종질병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사회서비스 제공 방식의 변화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어 긴급돌봄서비스와 같이 새로운 사업이 등장하고, 복합적이고 다중적인 사회서비스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서비스 공급주체 다변화사업 등이 추진 되어 왔다.

이 연구는 2023년 3월 2일 공개된 「2021년도 사회서비스 수요 실태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1인 가구의 사회서비스 인지도, 사회서비스 욕구와 이용실태 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2021년도 사회서비스 수요 실태조사」는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국민의 잠재적인 사회서비스 욕구와 이용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격년으로 수행하고 있다. 1인 가구 1,364명의 설문조사 결과를 SPSS Statistics 29.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대상자의 64.8%가 여성, 35.2%가 남성이며, 응답자의 52.4%가 60~70대로 나타났다. 월평균 가구 총소득은 256.38만 원, 월평균 가구 총지출은 180.72만 원이며,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를 중하층 53.5%, 중간층 이상 24.3%, 하층 22.2%로 평가하였다. 1인 가구 중 설문조사에 참여하기 전에 사회서비스에 대해 인지하고 있던 응답자는 61.1%, 인지하지 못했던 응답자는 38.9%이었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서비스 인지자의 경우 30대 이하가 많았으며, 대학교 이상의 학력, 최근 3개월 이내 경제활동을 하였고,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를 중간층 이상, 전반적 삶의 질이 좋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사회서비스 미인지자의 경우 월평균 가구 총지출이 100만 원 이하라고 응답한 비중이 컸다. 둘째, 사회서비스 인지자의 경우 사회서비스 이용 경험 비율이 성인돌봄서비스(인지자 13.9%, 미인지자 9.4%), 문화 및 여가서비스(인지자 4.6%, 미인지자 2.5%), 주거지원서비스(인지자 2.8%, 미인지자 0.9%)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이용 서비스 개수(인지자 0.44개, 미인지자 0.29개)와 이용 의향이 있는 서비스 개수(인지자 1.15개, 미인지자 1.00개)도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사회서비스 미인지자의 경우 사회서비스 관련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 주체를 개인이나 가족보다 국가가 전담해야 한다는 응답 비율이 인지자보다 높았다.

1인 가구의 사회서비스 인지 여부에 따라 사회서비스에 대한 욕구와 이용실태가 차이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통해, 국내 사회서비스 정책 및 사업에 대한 홍보를 더욱 강화하고, 잠재적인 사회서비스 수요자에게 사회서비스와 관련된 정보제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